‘忍辱’하는 자의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

혹 어느 누구로부터 해침을 당하거나 갖은 욕설을 들을지라도 상대에 원한을 품지 않고, 청정하게 사는 사람! 그를 일러 ‘훌륭한 성자’라고 한다.

- 어느 경전이든 인욕을 강조하며 ‘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할지라도 그를 향해 원망하지 말고, 자신이 참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참아야 한다’ 라고 한다. 하루를 참아서 몇 달을 벌고, 며칠을 참아서 몇 년을 번다는 말이 있다. 잠깐의 인내가 먼 미래에 행복을 불러들인다는 뜻이다.